

#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How Can We Live In An Evil World?

야고보서 1:14-2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2월 12일 설교

<sup>14</sup>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sup>15</sup>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sup>16</sup>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sup>17</sup>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sup>18</sup>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sup>19</sup>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sup>20</sup>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sup>21</sup>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은유함으로 받으라.

## 끔찍한 사건

지난 주일 저녁에 참 끔찍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조쉬 파월이라는 사람이 일곱 살, 다섯 살 난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집을 폭파시켜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은 두 해 전 부인이 실종된 이후 경찰의 감시를 받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들 양육권을 아이들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뺏긴 상태에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방문하러 집에 오자마자 집을 폭파시켜 같이 죽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부인 수잔 파월이 실종된 게 2009년 12월입니다. 유타 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나이 스물여덟 된 주부가 지갑도, 전화기도, 차도 다 집에 둔 상태로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사라진 그 밤에 남편은 두 아들을 데리고 캠핑을 다녀와 자기는 모른다 했습니다. 추운 겨울, 그것도 밤에, 이제 네 살 두 살 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다녀왔다는데 의심은 가지만 확인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네 살 난 아들한테 물어보니 정말로 캠핑을 다녀왔다 합니다. 방법이 없지요. 남편은 경찰 조사에 전혀 협조를 안 하다가 얼마 뒤에는 아들 둘을 데리고 워싱턴 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그래도 실종된 사람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가진 사람이 입을 안 여니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쉬 파월 부자하고 실종된 수잔 파월 부모하고, 사돈지간인 두 집이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서로 비방하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쉬 파월의 아버지가 불법 음란물, 특히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이 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잔 파월의 부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양육권 소송을 걸어 이겨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조쉬 파월은 아동 음란물을 본 아버지하고 같이 산 죄로 풀지에 아들 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게 다섯 달 전의 일입니다.

아들을 되찾으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이 꼭 열흘 전에 났습니다. 패소했습니다. 판사는 양육권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속 갖는다 하면서 조쉬 파월이 심리 및 성 검사를 먼저 받지 않으면 앞으로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심리 및 성 검사는 주로 성 범죄자들이 받는 검사인데 두 해 전 부인 실종 직후에 이 사람 컴퓨터에서 좀 수상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며칠 뒤인 지난 주일 정기 방문을 위해 찾아온 두 아들을 데리고 자폭을 하고 말았습니다.

## 자식 사랑?

조쉬 파월은 자살하기 전 나는 아이들 없이는 못 산다고 여러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두 아들을 끔찍이도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뜻 보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빼앗긴 아버지가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 결국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내가 아이들 아버지인데, 내가 아동 음란물을 본 것도 아닌데, 아들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엄마도 없는 두 아들이 아빠하고도 떨어져 있다 생각하면 잠이 안 왔겠지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같이 못 살 바에는 같이 죽자 했을까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죽이고 저도 죽은 걸 보면 사랑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요, 소유욕이지 사랑은 아닙니다. 아이가 내 물건입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그 창녀처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더라도 그 아이가 무사하고 평안하기를 기대해야 옳지요. 한국에도 보면 자식 먼저 죽이고 자살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고아

가 되어 고생할 거니까 같이 죽는다. 말은 그렇지요? 그 어떤 고생도 사는 것, 안 죽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동반 자살, 말이 틀렸습니다. 나는 자살이지만 아이들은 자살 아닙니다. 내가 죽인 겁니다. 살인입니다. 영어로 murder-suicide라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자살 및 살인이지요. 그거 절대 사랑 아닙니다.

조쉬 파월의 경우는 정말 끔찍합니다. 휘발유를 오 갤런 들이 통으로 두 개나 사 집안에 뿌려 놓고 기다렸습니다. 복지사가 아이들을 먼저 내려놓고 주차를 하는 사이 문을 열고 아이들한테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갔습니다. 복지사도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 아버지가 문을 닫고 잠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곧장 구일일에 신고를 했는데 전화를 하는 동안 평 하고 터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체부검 결과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아이들 목이랑 머리에 손도끼로 찍힌 상처가 있더랍니다. 도끼도 현장에서 찾았고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집을 폭파시키기 전에 아들 둘을 도끼로 먼저 내리 친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선물이지요. 그냥 폭파만 시켜도 죽을 건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 조쉬 파월은 냉혈한에다 아주 용의주도한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죽이려 한 겁니다. 너희 둘은 반드시 죽어 주어야 되겠다, 저도 죽겠지만 저보다는 아이들이 틀림없이 죽어야 되겠기에 도끼를 먼저 휘두른 겁니다.

## 가족이란?

괴로우면 저만 죽지 왜 아이들까지 죽이려 했겠습니까? 아이들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잘 키우고 있는데요? 신문을 읽어보니 아이들을 왜 죽였는지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가 실종될 때 두 살이던 둘째가 얼마 전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차에 세 사람이 타고 있더랍니다. 그 그림을 선생님한테 보여 주면서 엄마는 트렁크에 있다 하더랍니다. 큰 아이는 지금 일곱 살입니다. 그 아이도 캠핑을 갈 때는 엄마가 트렁크에 있었고 캠핑장에 가서는 사라졌다 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아들입니다. 이 아이들 없이는 나도 못 산다 싶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나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도 떼 놓을 수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 가장 큰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 세뇌도 시키고 해서 어떻게 덮어 보겠는데 아이를 빼앗겼으니 하루하루 불안해 살 수가 없었던 거지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 조쉬 파월이 자살을 한 건 내가 범인이요 하고 시인한 것과 같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정황을 볼 때 남편 말고 의심할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죽기 전에 한 말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부인을 죽인 게 분명합니다. 조쉬 파월과 수잔 파월은 부부였습니다. 둘이 만나 좋아해 결혼도 하고 여자는 수잔 카스에서 수잔 파월로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수잔 파월이 실종되자 조쉬 파월부터 의심한 이유가 뭘니까?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수잔이 조쉬에게 살해를 당했다 해도 그 이유는 딱 하나 둘이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둘이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도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나오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헛갈리지요? 누가 그랬습니다. 헛갈릴 필요가 없다. 왜요? 이웃하고 원수가 알고 보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명언입니다.

## 영적 싸움

오늘 들어 좋을 것 하나도 없는 이야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모르고 살면 좋겠지요. 내가 모르는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참 살벌하지요. 신문에는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고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여러분보다 신문을 많이 보니 그런 소식도 많이 접합니다. 이 미국만 해도 식구가 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매주 몇 개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지금 가정 폭력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똑바로 알자는 겁니다. 참 무서운 세상, 살벌한 세상입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도 하고 한 나라 안에서는 이 세력이 저 세력과 싸우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서로 이기려고 겨루고 싸우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끼리 싸움을 벌입니다. 사랑싸움, 감정싸움, 자존심 싸움, 주도권 싸움, 소유권 싸움, 끝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 모든 싸움을 가리켜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몸으로 하는 싸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관심 갖고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싸움에 얽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 직접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싸움을 그대로 싸우면 안 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

음을 영의 싸움으로 바꿔서 싸워야 됩니다.

영의 싸움에는 두 진영이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더럽히는 마귀 사이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 사람을 유혹해 우주에 죄라는 걸 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가 탐욕, 시기, 질투, 미움 등 온갖 열매를 맺어 사람들로 하여금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부부가 나누어져 싸우고 동생을 아끼고 돌보아야 할 형이 동생을 죽여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보는 모든 싸움이 이 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싸움은 어느 것이든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맞서 싸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 마음이 싸움터

싸움이 벌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은 바깥 저기서 벌어집니다. 거친 말이 오가다가 주먹이 왔다갔다하고 나중에는 흉기도 등장합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뒤에서 미워하고 속이고 술수를 꾸미고 편 가르기를 하는 것도 다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 밖이 아닌 안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몰라도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저께 신문에 아이들을 조쉬 파월에게 데리고 갔던 복지사가 인터뷰를 한 게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조쉬 파월을 가리켜 “정말, 정말 악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저는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 맞지요. 어떻게 그 예쁜 아들 둘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폭발에다 도끼까지,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야 할 사람이 가장 나쁜 짓을 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조쉬 파월이 당연히 그런 사람 맞지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악한 사람도 알고 보면 참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면서 자라긴 했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도 착실하게 잘 했습니다. 모르몬 신자로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좀 자기중심이긴 했지만 두 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이야 사람들이 몸서리를 치지만 그 전에는 그저 남하고 크게 다를 바 없던, 두루 잘 지내던 이웃입니다.

이번 폭파 자살을 준비하면서 장난감이랑 책은 자선기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냥 평 하면 다 없어지는데 괜찮은 건 모아서 차에 싣고 갖다 주는 수고를 했습니다. 죽기 전 친구들이랑 다니던 교회 목사랑 변호사한테 메일을 보내 작별 인사도 하고 또 남은 돈이랑 물건은 어떻게 처분해 달라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자식 죽인 걸 보면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는데 그 끔찍한 악마가 사람 모양을 하고 이사 가는 사람처럼 참 차분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 작은 일에서

세상이 무시무시한 이유는 사람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는 꼭 하나, 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악한 자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조쉬 파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 평소에는 눌러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누르고 있지요. 가정도 도와주고 또 사회 제도 역시 악한 자아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같이 억눌러 줍니다. 그런데 이 악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 마디가 잘못 튀어나와 말싸움이 되고, 말싸움이 몸싸움이 되고, 그게 발전해 죽이는 지경까지 갑니다. 수잔 파월이 차 트렁크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부싸움을 했겠지요.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를 성추행을 많이 한 모양인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걸 모른 체한 것도 문제였겠지요.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음란물에 중독이 된 사람인데 음란물을 오래 보다 보니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러다가 며느리를 집적거리는 패륜행위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게 욕심에서 시작된다 가르칩니다. 욕심이 뭘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로 타락한 자아를 한 마디로 줄이면 욕심입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돈도 가지고 권세도 누리고 쾌락도 즐기고 남보다 더 나아 우월감도 가지고 자랑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내 속에 있습니다. 조쉬 파월 속에도 또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게 그 상태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가만 안 있고 새끼를 칩니다. 행동하게 만듭니다.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는 한 번 생기면 가만있지 않습니다. 자랍니다. 장성한다 했는데 원문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요? 죽음입니다. 살인을 저지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죄가 나를 죽입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미

내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죽어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죽음으로 갑니다. 양심이 눌러주고 가정과 사회가 눌러주지만 그거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 영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냥 두면 더러운 것만 나옵니다. 악이 넘쳐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아가 두 개 있습니다. 육의 생명 말고 영의 생명이 또 있습니다. 전에는 더러운 것 악한 것만 솟아나오던 내 몸에서 이제는 좋은 것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건 조금씩 줄고 빛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로 더러운 것, 악한 것을 억누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에는 근본적으로 싸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악이 있고 그 악이 얼마나 힘을 쓰느냐 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선물을 들푹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로 더러운 것, 썩은 것을 다 제거하는 일입니다. 욕심에 끌려 이런저런 죄를 짓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통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과 다르지만 이어져 있습니다. 영의 싸움은 어떻게 이깁니까? 간단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안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순간 영의 싸움은 집니다. 전에 한국 교회가 정부가 불교에는 돈을 많이 주고 교회에는 적게 준다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돈을 가지고 세상과 힘겨루기를 하는 순간 이미 졌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목사를 비판했다고 다음날 찾아가 때려 부순 교인들도 사실은 마귀의 조종을 받은 것입니다. 영의 싸움에서 참패한 거지요. 이긴 사람도 있습니다. 몇 해 전 আমি쉬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여럿이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지요. আমি쉬 사람들의 첫마디가 용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희생된 한 아이의 할아버지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분노, 슬픔, 그걸 되갚지 않겠다 한 겁니다.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안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겼습니다. 마귀는 굴복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면 먼저 마음에 반응이 옵니다. 분노지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노를 조심하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을 내면 영의 싸움에서 집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거듭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뿐입니다. 더러운 것은 무엇이든 버리고, 지금도 내 속에서 샘솟듯 뿜어 나오는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로 유익합니다. 첫째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눌러줍니다. 이거 안 누르면 튀어나와 자라고 나중에는 나도 사람을 죽일지 모릅니다. 양심이나 사회 제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다 알고 보면 한 성질 하지요? 그런데도 성 안 내고 사고 안 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은혜로 나를 계속 붙잡아 주시도록 간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속에 있는 악도 누르지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악도 함께 눌러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상대방 마음을 굽는 소리를 합니다. 그 때 굽힌 사람이 성이나 상대를 더 굽을 수도 있고 그걸 그대로 녹여 참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이나 상대를 더 굽으면 상대방 속에 있던 더러운 본성, 악한 본성이 얼씨구나 하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내 목숨이 위태로워 위험천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 위험천만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키워 죽이는 겁니다. 영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도 말을 천천히 하라 가르칩니다. 한 마디 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 합니다. 내가 지금 할 말이 하나님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마귀의 줄게가

되자는 건지 생각해야 됩니다. 남이 더러운 본성을 발휘해 죄에 빠지려 할 때 그걸 막아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조쉬 파월은 유타에, 워싱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커네티컷에도 있고 그리니치, 스탬포드에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잠재적인 조쉬 파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 주세요 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내 말 한 마디, 내 행동 하나가 평범한 시민을 희대의 악마로 바꾸어 놓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남을 속이는 일, 남을 짓밟는 일,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좋아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고 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저 주고 기쁘게 당합니다. 전도하는 것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더러운 것, 죄악을 억제해야 하고, 다른 사람, 내 식구든, 직장 동료든, 운전하다 만나는 다른 운전자든, 그 사람들이 죄를 드러내기보다 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우리 일입니다.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일도 영의 싸움에 포함됩니다. 법이나 제도가 정의롭게 되어야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새 생명을 주시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먼저 믿은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살 수 있도록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칙은 쉽지만 세상이 복잡해 적용하기는 늘 어렵습니다. 마귀가 또 머리가 영리하다 보니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헛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웃이 나를 화나게 해도 우리가 맞설 상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맞설 상대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세상에서는 지금도 끔찍한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주 예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이웃을 악한 세력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며 노력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권수경 목사)